

조혈모세포 기증한 연길 '00' 후 청년 장운택

“환자에게 생의 희망 전해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조혈모세포 기증자-‘00’ 후 청년 장운택 / 연길시당위 선전부

3월 26일 연길서역, 이날 특별한 영웅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바로 성공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마치고 연길로 돌아온 '00' 후 청년 장운택이다. 그는 연길시 4번째, 연변주 15번째, 길림성 191번째, 전국 1만 9,679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이다.

이날 연변적십자회와 연길시적십자회는 연길시서역에서 갖 대학을 졸업한 '00' 후 청년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선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환자에게 생명의 희망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선행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자신도 머리를 삭발하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마치고 돌아온 장운택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만 상태는 양호했다.

“기증하기 6일전인 3월 20일, 특별히 머리를 밀었다.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행동으로 ‘같이 곤난을 함께 하자’는 마음을 담아 환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기증 의지를 보여주며 지

지를 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장운택의 얼굴에는 생기발랄한 미소가 가득했다.

기증 과정에 대해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당대 청년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기증은 기존의 골수에서 채취하는 방식이 아닌 말초혈액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식으로 일반 성분 현혈 과정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해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전해줄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운택은 기증자에게 희망과 신심을 주고저 손편지도 썼는데 봉투 안에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꽃씨도 함께 넣어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씨앗은 희망을 상징한다. 조혈모세포가 몸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듯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증을 위해 체중을 늘이다

장운택의 기증 결심은 2021년 친구 결혼식에서 시작했다. 신랑 왕유현이

2020년 연길시 2번째, 연변주 7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운택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면 혈액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영화 《나는 약신이 아니다》 속 환자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다.

왕유현의 기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운택은 왕유현의 선행으로 희망을 되찾은 한 생명을 떠올렸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용감한 선택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이 또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장운택은 ‘우리 각자가 어느 누군가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삼 느끼면서 자신도 기증자로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2023년 대학 재학중이던 장운택은 중화골수고(中华骨髓库)에 등록하고 이어 인터넷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지식을 꾸준히 학습했다. 2024년 중화골수고로부터 전화를 받은 그는 자신이 한 환자와의 매칭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망설임없이 기증을 승낙했다.

기증이 확정되자 체중이 부족할 것을 염려했던 장운택은 즉시 식습관을 조

절해 체중을 늘이기 시작했다. 장운택은 “등록을 마친 그해에도 매칭에 성공했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두번째로 매칭에 성공했다는 통보에 이번엔 꼭 선택받고 싶은 마음에서 최선의 상태로 기부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부를 위해 그는 체중을 처음의 118~120 근에서 128 근까지 늘이는 데 성공했다.

◆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기증의 동력으로 되다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기증을 이 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였다.”고 말하는 장운택, 그는 가족의 대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장준으로 함께 동행하여 기증을 마쳤다고 했다.

장운택의 부친 장선생은 “부모로서 아들의 결정이 자랑스러웠다. 매칭에 성공하자 재빨리 자료를 뒤져보면서 의사에게도 문의했다.”고 하면서 “장준 의료진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건강에 영향주지 않으며 수분 보충과 적당한 휴식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젊은 몸이니 회복도 빠를 것이라 판단해 지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선생은 “기증 과정의 불편함이 생명을 구하는 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가족의 공통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운택은 “그가 기증을 결정했을 때 부터 부모님이 반드시 저를 지지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서 “법을 관련 종사자인 부모님들은 평소부터 공익활동에 적극적이었고 깊은 이해와 인정을 갖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문천지전 때 6살의 제가 처음 기부를 한 것도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라고 회상하면서 “소학교 시절 백혈병에 걸린 동학을 위해 모금할 때도 아버지는 특별히 저에게 200원의 기부금을 주셨다.”고 말했다.

장운택은 공익사업에 적극적인 부모님들이 그의 나눔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행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로지에서 더욱 힘차게 확고하게 전진할 것이며 더욱 많은 이들이 조혈모세포 기증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영향주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피로했다.

/리전기자

북산가두 퇴봉반, 21년간 이어온 나눔의 기록



올해 3월 5일은 제 62번째로 되는 ‘퇴봉 따라배우기 날’이다. 연길시 북산가두 퇴봉반의 수백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퇴봉정신을 실천하고 전파했다.

21년전 설립 당시 고작 10명의 봉사자로 시작된 북산가두 퇴봉반은 현재 만여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모은 기부금은 500만원, 현금량은 7만 5,000달러, 선행 실적은 4만 5,000여건에 달하며 고아, 빈곤학생,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불우이웃 돕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223병원 유치원에서 퇴직한 왕효평은 북산가두당위의 지지하에 중재상, 리진옥, 한무길, 룽동춘, 리성복 등과 함께 퇴봉반을 이끌었다. 중재상은 한어로, 리진옥은 조선어로 ‘퇴봉보’를 꾸리며 퇴봉정신을 알렸고 한무길과 리성복은 각각 한어와 조선어로 퇴봉정신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강연과 함께 빈곤학생들에게 수만원에 달하는 장학금, 학용품, 의류,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7년 퇴봉반에 합류한 한무길은 맹인 김봉숙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모은 5만 5,000원으로 집을 구입해 김봉숙에게 넘겨 주었다.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유체도 기증했다. 김봉숙 역시 한무길의 뜻을 이어 퇴직금 12만원으로 30여명의 학생을 지원하며 선행을 이어갔다. 2008년 문천지전 때 반지를 팔아 재해지역에 기부했고 2021년에는 생애의 마지막 나눔

으로 유체를 기증했다.

75세의 리성복은 자식들이 보내온 생활비까지 털어가면서 20여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로인들을 지원했고 도서 700권을 학교에 기증했으며 연길시 의란진 양로원에 1,000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그가 학생, 로인, 양로원에 기부한 물품 액수는 도합 15만여원에 달한다. 또한 그는 10여년째 하남성과 길림시에서 온 농민들에게 물품량 면의 도움을 주면서 퇴봉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다.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당위 서기 왕수청은 ‘중국 좋은 사람’ 영예를 지닌 인물로서 23명의 결손가정 아동들을 위해 ‘대리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관할구역의 125개 상점과 손잡고 ‘행복우산’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로인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봉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산가두 퇴봉반은 ‘전국우수자원봉사조직 10대 표창’과 ‘전국시범가두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왕효평, 한무길, 박철원, 왕수청 등은 각각 전국적인 표창을 받으며 퇴봉정신의 본보기가 되었다.

가두의 관련 책임자는 “퇴봉정신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잡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했다. 이들의 21년간의 령정은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나눔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리성복특약기자 / 사진 북산가두당위



룡정시 안민가두 승룡사회구역공회 ‘어머니집’ 오픈



최근 룽정시 안민가두 승룡사회구역공회 ‘어머니집’이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면서 임신 준비중이거나 임신기, 수유기 여성들에게 사적이고 깨끗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관할구역 산모, 준산모들의 따뜻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룡사회구역공회는 여성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과 특수 리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공회의 직능 역할을 발휘하며 전사회적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룽정시총공회, 룽정시 안민가두공회의 세심한 지도하에 30평방미터에 달하는 ‘어머니집’을 건설했다. 실내에는 과학적 육아 선전 포스터가 게시되어있고 쏘파, 아기침대, 기저귀 교체대, 수유공간, 조절이 가능하고 안

전버클이 있는 보조식사 의자 등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이를 통해 조부모님들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어머니집’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승룡사회구역공회는 산후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육아전문가를 초청하여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임신부와 산모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산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련 책임자는 “공회는 ‘어머니집’을 통해 여성종업원과 관할구역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전기자 / 사진 룽정시총공회



왕조룡에게 ‘전국모범퇴역군인’ 훈장과 증서 수여

군인의 우수한 전통 발양해 국가 세무사업과 지방 경제건설에 이바지할 터

3월 28일, 연길시퇴역군인사무국은 ‘전국모범퇴역군인’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국모범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은 국가세무총국연길시세무국 부국장 왕조룡에게 훈장과 증서를 발급했다.

2000년 8월, 왕조룡은 부대에서 전역하여 원 연길시국가세무국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세무계통에서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왕조룡은 시종 군인의 본색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헌

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퇴역해도 본색은 변하지 않으며 웃만 바뀌었을 뿐 마음은 그대로’라는 퇴역군인의 풍채를 보여주었다. 2024년 7월, 왕조룡은 전국퇴역군인사업회의에서 ‘전국모범퇴역군인’으로 선정되

었다.

수여식 현장에서 연길시퇴역군인사무국 책임자는 왕조룡에게 훈장과 증서를 발급하고 축하와 경의를 표했다. 왕조룡은 격동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묵묵히 헌신해온 전체 퇴역군인들의 공동의 영예이다. 앞으로 계속해 군인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더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로 국가의 세무사업과 지방의 경제건설에 큰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여식이 끝난 뒤 연길시퇴역군인사무국과 국가세무총국연길시세무국은 퇴역군인들에 대한 봉사 보장을 일층 강화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을 추진하는 등 의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좌담을 진행했다. 왕조룡은 “세무부문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퇴역군인들의 창업, 취업, 세수우대 등 정책을 더 널리 선전하고 정책이 모든 퇴역군인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며 그들이 새로운 령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리전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